

왜 지금 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가

2018.09.01

講員：鄭俊坤

翻譯：周慧珍・康智訓

1. 문제제기

※근대 국가가 가지는 시스템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,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내면의 벽을 깨뜨려야 함.

- ① '국가'와 '국민'의 개념에 속박되지 않고, 국민국가의 '제도적인 벽'과 '내면적인 벽'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.
- ② 아시아 공동체를 보는 두 가지 시점에서의 접근
 - A. 구조기능론적인 접근(정치·경제·안전보장) → 국가
 - B. 사회·문화·교육 시점에서의 접근 → 개인
- ③ 세방화 (Glocalization) 의 시점 → 정체성 (Identity) (중앙 아시아, 인도네시아, 일본, 한국)
- ④ 국경을 넘나드는 두 부류의 인간 이동 → 현재 생산형태에서 없어서 안 될 것
 - A. 재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 (본인 의지로의 국경 이동)
 - B. 궁핍과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
- ⑤ 세계화된 '경제시스템'과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'정치시스템', 이중 시스템(마찰과 대립) → 20 세기 후반 이후 세계의 방향과 현황(국가 이익과 주권 국가의 틀 속에서만 표현, 정당화)
- ⑥ 이러한 '변화'와 '한계'를 대응하기 위해 생긴 키워드(keywords): 자본주의, 민주주의→ 이들의 기능부전 발생→ 기존의 방법이나 시스템으로는 지구의 여러가지 문제(격차, 빈곤, 환경, 에너지, 식품, 안전보장 등)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
- ⑦ 각각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정

2. '변화'와 '한계'의 대한 대응

- ①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 옛 시대의 가치와 전통으로 회귀하려 한다.
- ② 기존의 한계나 위기를 넘어,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.
- ③ 변화에 있어서의 '방향 설정' → '원점'으로 돌아가기 → 문제의 근본과 본질에 기인
⇒ 원점에서의 발상 ⇒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현 상황을 파악하여 본래의 상태나 목적을 이해하기(존재이유) → 예를 들어 '자아란 무엇인가?', '사람이란 무엇인가?' '국민이란 무엇인가?' '나라란 무엇인가?'

3. Thomas Hobbes 의 국가 이해 → '인간이해'로 발제 →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본인이 지킬 수 밖에 없다는 '자연상태'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. 그러한 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로 위해 사회계약에 의한 근대국가가 등장¹

⇒ 즉, 인간의 자연상태(서로 죽이는 상태 발생의 가능성: 만 명의 사람이 또 다른 만 명과 서로 대립한 위협 상태) → 생명의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 발동 → 자연권을 포기 → 계약(사회계약) → 공동 권력(Common Power)의 발생: 절대권력이 발생 → 권력=주권 → (법의 지배 하에 살아가게 됨) ⇒ 인간을 사회(국가)상태로 속박

⇒ ① 사회의 기원

②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의 규칙 ⇒ 사람과 사람의 약속 ⇒ 이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토대 형성 ⇒ 국가는 인위적 산물임을 증명

4. 국가, 개인(국민)의 문제의 제기

<동일본 대지진>(2011년) ⇒ 원자력 발전소 사고

- ① 주권국가의 한계
- ② 국가와 개인의 관계, 정보 공개와 알 권리(right to know)
- ③ 안전보장(전통적인 안전보장 → 비전통적인 안전보장: 인류의 안전보장)
- ④ 시장경제체제의 한계, 산업 기술과 생명윤리의 문제
- ⑤ 효율성과 합리성의 문제 /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

¹ 『Leviathan』 (1651년 著)

A. 지리적, 공간적 시점에서의 문제 제기(국경을 초월할 시점과 지역 통합의 필요성)

B. 시간적, 역사적 시점에서 문제 제기(시대를 초월할 시점과 전인류적 시점)

⇒ 여기서 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핵심 ⇒ 국경을 초월한 발상과 시점 →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가치 체계로 오늘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기는 어렵다 → 지금까지 적용해온 생각이나 체제에서 벗어나, 새로운 시스템, 가치 체계, 철학적 발상이 필요하다.

5. 근대 국민국가의 또 하나의 벽 : 내면의 벽

① 베스트 팔렌 조약(1648년)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국민, 영토, 주권(통치권)이 중심이 됨 → 국경, 국민, 국가를 강조함.

② 민족주의(국가주의) → 국민화 → 정체성

③ 국민국가는 '한 공동체에서 하나 된 문화가 있으며, 하나 된 정체성이 형성된다'라는 가상 → 그것을 위한 '국민화' .

④ '국민이란 마음에서 그려진 상상의 공동체'(Benedict Richard O'Gorman Anderson).

⑤ 문화 → '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장치' (C. Geertz) → 인간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다 → 문화나 정체성으로의 자유 → 타자와의 공존.

⑥ 정체성의 유동성 → 문화나 정체성으로의 자유 → 타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 조건.

6. 개인, 국가, 국민의 관계(내면적 측면)

①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 (인간이해) → 공동체의 존재 방식과 방향성.

② 사람은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님 →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를 경험함으로써 인해 국민화된 신체가 조국을 위해 희생하기를 희망하여, 국민화된 신체가 타국민을 학살함으로써 명예를 느끼는 단계로 변해가는 역사적 경험. → 어쩌서 이렇게 된 것인가?

③ 민족과 국가, 그리고 민족주의의 결합, 근/현대의 민족 국가에서 인류는 많은 비참한 폭력과 혼란을 경험 →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'국경'이란

'울타리'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.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'안'과 '밖'을 명확히 규정.

- ④ 기본 인권이란 보편적인 개념으로써 국경과 아무 연관이 없음→ 하지만 실제상황에서 국경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 적용, 국경 밖에 있는 사람, 국내에 거주한 외국국적자나 무국적자는 기본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.
- ⑤ 공동체의 공통적인 연대는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쌓여나가야 한다.
- ⑥ 국가가 '절대적 존재'인가? '필요악'인가?→ 국가는 영구적으로 확정된 구조나 체제가 아니며, 늘 새로운 것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
- ⑦ '국가'나 '국민' 의식은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.

⇒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란 지리적, 공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,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타민족과 다른 문화에 대한 '내면의 벽'(편견, 선입견)을 넘어서는 것이다. (그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, 배려, 이질감에 대한 포용력)

결론 - 국민국가를 넘어서

- ① 아시아 공동체는 폐쇄된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이다. ⇒ '지역적인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, 풍부하고 다양한 개성, 전통,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공동체이어야 한다.' ⇒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오래된 '장벽'을 하나씩 정복하는 과정에 아시아 공동체가 서 있는 것이다. ⇒ 최종적으로 세계가 하나가 됨.
- ② 21 세기는 '국가'나 '국민'이라는 개념에 탈피하여 다문화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시민사회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.
- ③ '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, 그룹 형성하고 부터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' → ※민족이라는 이름의 '상상의 공동체'²
- ④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 코드를 '민족'에서 '시민'으로 전환.

² Benedict Anderson 의 개념에서 인용

- ⑤ 자유와 평등,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행복을 추구→ 국가라는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.
- ⑥ '경쟁의 패러다임'에서 '공존의 패러다임'으로 전환.
- ⑦ '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,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고 한다.'³

※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간의 제도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지금까지의 제도나 가치관을 넘는 것이며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의 변화, 곧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.

³ (1952, Jean Omer Marie Gabriel Monnet)